

# 김승환 '1심 무죄'에 검찰 항소

〈전북도교육감〉

###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인사 부당 개입 의혹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다시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은 직권남용 및 권력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전주지법 형사1부 노종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근평 수정을 지시한 것은 법령이 정한 임용권자인 교육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하다”면서도 “확정된 승진후보자 명부 자료에 맞춰 근평정(안)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법령에 정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의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와 맞춰 대상자의 근평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통해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

이 4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김 교육감이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정당한 직무권한을 벗어나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에 부당 개입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 교육감에 대해 “피고인은 인사 평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음에도 정당한 직무권한을 벗어나 근무성적 순위 조작을 지시해 이는 위법한 직무 집행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삼민 기자

## 검찰, 고준희양 친부 집 등 4곳 압수수색... 육아기록 등 분석

‘고준희(5)양 유기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전주지검은 전날 준희양 아버지인 고모(37)씨의 회사 사무실과 완주군 봉동읍 고씨 주택, 내연녀 이모(36)씨와 이씨의 모친 김모(62)씨의 주택 등 모두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압수수색을 통해 준희양 육아기록을 비롯해 고씨의 인터넷 사용내용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현재 이 사건을 위해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팀에서 2명을 지원 받아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저장 매체에 남은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 방법이다. 아울러 검찰은 고씨 등이 실종 신고 직전에 휴대전화를 바꾼 것과 관련,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찾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고씨와 이씨는 아동학대치사와 사체 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3개 혐의로, 김씨는 사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2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중간 부검결과를 통해 준희양이 폭행으로 숨졌을 수 있다는 소견을 내놨다.

고씨는 지난해 4월 초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아 거동과 호흡이 불편해진 준희양을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숨진 준희양의 시신을 내연녀 모친인 김씨와 함께 지난해 4월 27일 오전 2시에 군산시 내초동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경찰 단계에서 대부분의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이번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이라며 “학대치사 여부 연관성에 대해 지속해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삼민 기자



“누구를 위한 편입인가?” 12일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서남대 특별편입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총장과의 간담회에 나서고 있다.

## 전주시, 공공장소에 수도물 음수대 설치한다

### 올 상반기 중 전주역·시외버스터미널·고속버스터미널에

전주시는 청정수 수도물을 시민들과 관광객이 마실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음수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권혁신)는 수도물 음용율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관공서를 중심으로 설치된 수도물 음수대를 전주역과 버스터미널 등 공공부문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냉·온수를 음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수도물 음수대는 시민 공모로 채택된 전주시 수도물 브랜드 ‘전주 얼수’의 이름으로 탄생했다.

시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모이는 전주역과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등 3곳에 우선 설치해 건강한 수도물 음용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가 공공장소에 직수형 음수대 설

치에 나서게 된 것은 수도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을 이유로 수도물 음용율이 낮기 때문이다. 맑은물사업본부는 2017년도 수도물 음용률 만족도 조사에서도 시민들은 소독 냄새(35.9%)와 막연한 불안감(33.9%)을 이유로 수도물을 마시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시정 민원실 등 각 부서에 총 73개의 수도물 음수대를 설치했고 공공기관부터 수도물을 출산 음용함으로써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와 인식변화를 이끌어내 왔다. 올해도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한옥마을과 노송광장 등 공공장소에 음수대를 설치하고 직수형 음수대가 설치되지 않은 시청 부서에 음수대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또 음용을 꺼리는 주요원인인 소독약 냄새를 줄이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회 소독농도를 최소로 유지하는 방법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소독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도물 공급을 위한 필수적인 공정으로 시민들의 이해가 요구되는 사항이다.

맑은물사업본부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해 먹는물 수질기준인 59개 항목보다 40개 늘어난 99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수기수나 지하수보다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권혁신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수도물을 마시는 일이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 행동으로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수도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 “피나스테라이드’ 남성불임 원인”

### 전북대 박종관 교수, 쥐 대상 밝혀... 천연물질 치료 효과도

전립선비대증과 남성탈모증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피나스테라이드’가 남성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드가 일으킬 수 있는 임신저능력을 얼마나 개선시키는가를 확인한 것이다. 국제저널인 Drug Design, Development and Therapy 2017년 11월호에 발표했다.

박종관 교수는 “수컷 쥐에서 피나스테라이드가 소포체산상과 세포자멸을 초래하여 남성 임신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으며 DA-9401은 이러한 부작용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좋은 약물로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종관 교수를 비롯한 비뇨기과 불임연구실에서는 이번 연구 외에도 세계최초로 항암제 치료시 발생하는 불임을 치료할 수 있는 천연물신약 MOTILPERM의 동물실험을 마치고 이를 국제저널 ‘Cancer Cell International’에 발표하는 등 남성불임치료를 위한 천연물신약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채규남 기자

전북대학교병원 비뇨기과 박종관(사진) 교수팀은 피나스테라이드에 의한 쥐 고환의 세포자멸과 DA-9401에 의한 보호효과; IRE1과 cJNK 통로에 대한 연구 결과가 이용되고 있는 피나스테라이드가 고환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남성난임 개선 또는 치료제로 개발 중인 천연물질(DA-9401)이 피나스테라이

## 전주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신청 접수

전주시는 올 한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전개하기로 했다.

시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원하는 기관에 자전거 전문강사를 파견해 자전거 관련법규와 올바른 통행방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론교육과 자전거 타는 요령, 기본점검 방법, 자전거 타기 실습 등의 실기교육을 1회 2시간 정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자전거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강사 인원을 보강하고 안전교육의 횟수를 늘렸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확대해 어려서부터 올바른 자전거 이용방법을 익히고 타는 습관을 기르기 위한 교육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올바른 자전거 이용방법에 대해 습득하고 안전의식을 길러 향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자전거타기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희망하는 단체는 전주시홈페이지(www.jonju.go.kr)의 분야별정보-교통/도로-자전거 찾아가는 안전교실을 통해 신청하거나 전화(063-281-2662) 또는 팩스(063-279-4596)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선착순이며 일정을 조율해 오는 3월부터 자전거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단, 일반 단체의 경우 10명 이상의 교육희망자가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 /채규남 기자

## 건조 나홀된 선박 좌초 강한 바람·높은 파도에

군산 옥도면 선유도 장자 대교 인근 해상에서 4.9급 선박(선외기) 1척이 좌초된 채 발견돼 해경이 현장 안전 관리에 나섰다.

해경에 따르면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에 떠내려온 이 배는 규벌·파손과 함께 고가의 엔진(4000만원)이 유실됐고, 보조 엔진(2,500만원)도 파손된

상태다. 좌초된 배는 건조된 지 나흘밖에 지나지 않은 배로 지난 10일 선박 등록을 마치고 장자도 선착장에 계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피해 상황 조사와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삼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